

AI 대전환과 노동의 미래

이 병 훈
(중앙대 명예교수)

[2026-1학기 동남아 열린 강연]

[2026. 5]

차 례

- 노동에 대하여
- AI 대전환에 대하여
- 노동에 대한 AI 대전환의 영향
- AI 대전환 대응의 노동사회 과제

노동의 기본 이해

노동의 개념 정의

- 국어대사전: 사람들이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-정신 노력을 투입하는 행위
- Marx: 인간-자연의 상호작용을 통해 욕구충족을 위해 수행하는 합목적적 활동
- Tilly & Tilly: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재화 & 서비스를 생산하는 인간 활동 (vs. 자기 욕구/필요 충족의 여가/소비활동)
- Lefevre: 물질&정신 가치, 욕구, 사회적 관계의 생산활동
- ❖ M. Weber: 직업/일 = 천직 & 소명 (서구 자본주의의 청교도정신)
- ❖ H. Arendt 「인간의 조건」 : Labor (생계노동) vs. Work (문화적 활동) vs. Action (사회관계적 행위)

노동의 사회경제적 의의

- ❖ **인간 생존의 기본토대이자 자아 실현 & 사회적 연대의 필요조건**
 - Adam Smith (국부론): “사람은 항상 일을 하며 살아야 하고 그에 따른 수입은 적어도 먹고살 수준은 되어야 한다.”
 - Sigmund Freud: 인간행복의 핵심조건, 사랑과 노동
 - Ernst Schumacher (노동의 세가지 목적): ①인간 삶에 꼭 필요하고 유용한 상품이 나 서비스를 제공, ② 선한 청지기처럼 신이 주신 재능을 잘 발휘하여 타고난 각자의 재능을 완성, ③ 태생적인 자기중심주의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봉사&협력
 - 요한 바오로 2세 (1981년 ‘노동하는 인간[Laborem Exercens]’ 회칙 반포): “노동은 인간이 자연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필요에 부응케 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인간으로 실현시키기 때문에, ‘보다 인간으로 되기’ 위한 하나의 특전이며, 인간 존엄성에 상응하는 선(善)이 되어야 한다”
- ❖ **근/현대 국가체제의 핵심적 경제 · 사회 · 정치 고리로서 노동**
 - 경제발전의 중추적 투입요소이자 산출분배 주체로서 자본과 노동
 - 노동의 시장 상품화(고용/소득 결정기제) & 노동력 상실 위험 대비의 사회안전망
 - 정치사회적 집단 세력화 (노동자정당과 노동조합 그리고 정치 시민권) & 자본주의 안전판으로서 노동기본권(대공황과 사회주의 혁명 대비의 뉴딜정책)
- ❖ **반노동(Anti-work) & 탈생산력(Post-productivism) 담론의 ‘게으름 미학’**

기술혁신과 노동 – 몇가지 논점

❖ 기술혁신의 파급효과

- 증강효과 (Augmentation Effect): 노동 생산성 향상 지원 → 수요/고용 증대 & 경제성장
- 대체효과(Replacement Effect): 자동화에 따른 노동 대체 → 기술실업

❖ 기술혁신의 일자리 & 숙련 영향

- 긍정효과(Positive Effect): 일자리 창출 & 고급숙련화(upskilling)
- 부정효과 (Negative Effect): 일자리 삭감 & 탈숙련화(deskilling)

❖ 기술혁신의 불평등 효과

- 노동-자본간의 분배 악화: 노동소득분배 지속하락 & 자본 집중 심화
- 노동소득 양극화: 숙련편향적 혁신 효과로 고숙련/고소득 vs. 저숙련/저소득 격차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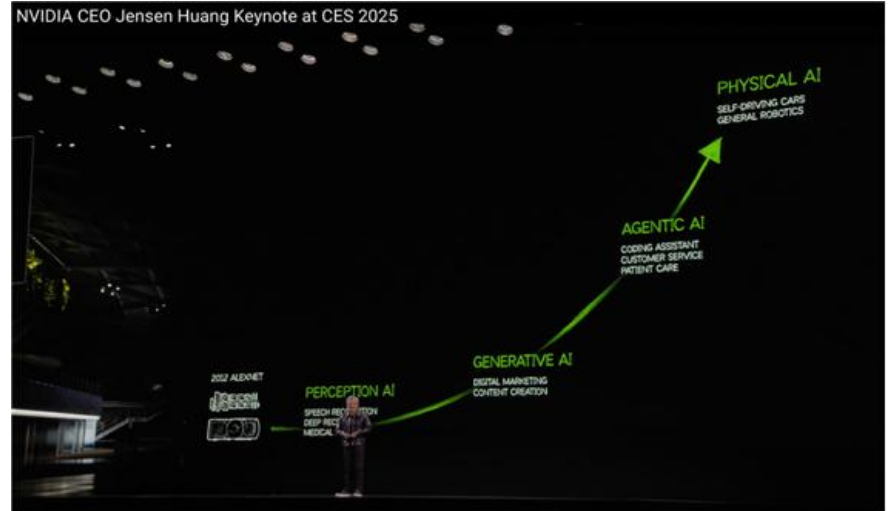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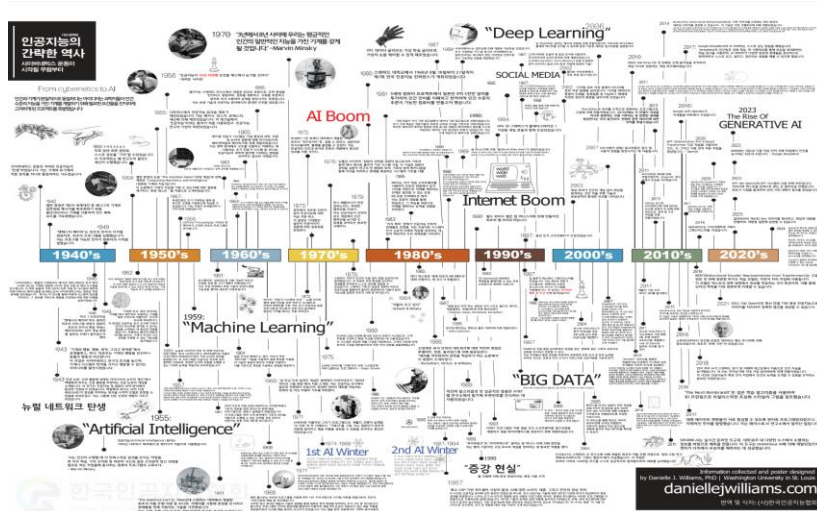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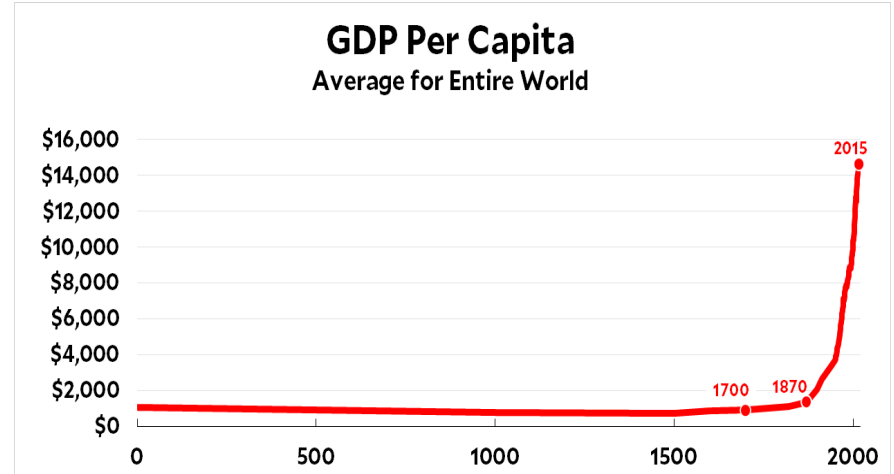
❖ 기술혁신의 통제/감시 효과

- 노동-자본간의 교섭력 & 권력관계 변동
- 노동의 기술적 통제 & (전자)감시 강화 vs. 제한

- 노동/일자리에 대한 기술혁신의 영향/효과는 상황조건 및 노동정치 좌우
- 그동안 신규 창출 일자리가 소멸 일자리를 크게 상회 (Autor에 따르면 미국의 현재 직업 중에서 약 40%만이 1940년 당시 존재)

AI 대전환 살펴보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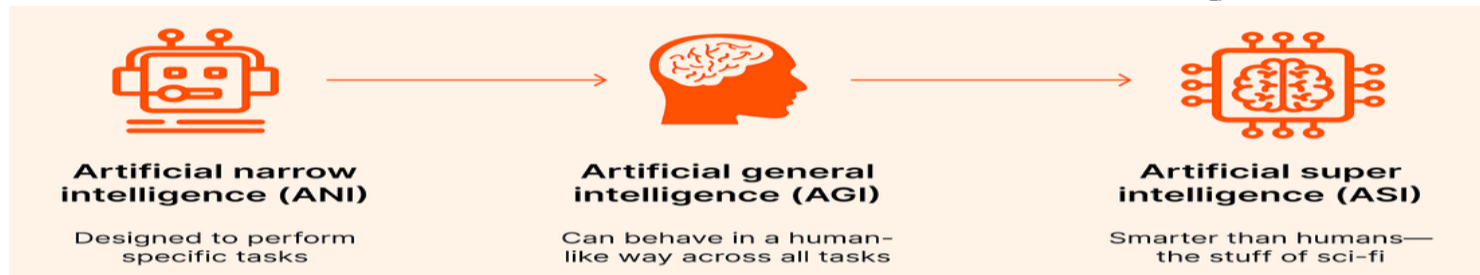
4차산업 혁명과 AI 대전환



❖ 인류문명/지성 대전환: 코페르니쿠스 - 다윈 - AI

인공지능 (AI) 기본 이해

- ❖ OECD 정의: “인공지능 (AI) 시스템이란 명시적 또는 암시적 목적을 위해, 수 령한 입력을 바탕으로 물리적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측, 콘텐츠, 권고, 결정 등의 결과물을 생성하는 방법을 추론하는 기계기반 시스템 의미”
- OpenAI AGI 정의: “highly autonomous systems that outperform humans at most economically valuable work”
- ❖ AI 작동/성장의 3대 요소
 - 거대 범용 목적기술 모델 (인공신경망 Transformer, LLM foundation)
 - 대량의 공공 데이터
 - 초강력 연산능력 프로세서
- ❖ AI기술의 진화/발전: ANI ⇒ AGI (Generative AI → Agentic AI) ⇒ ASI



- ❖ AI 대전환 (Singularity)의 전망 시나리오

◀ Trans-humanism 유토피아 – AI 위험 – AI Mirror(확률앵무새) – 인구절멸 디스토피아 ▶

미래의 AI 세상, 상반된 전망

AI UTOPIA



AI DISTOPIA



Tech Support by R. Kikuo Johnson. [Image: R. Kikuo Johnson (illustration)/The New Yorker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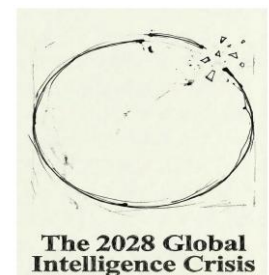
노동에 대한 AI 대전환의 영향

AI 기술혁신의 양면적 노동 영향

- AI 기술혁신은 노동 & 일자리에 대해 긍정-부정의 양면적 영향 미칠 것으로 논증
 - **긍정 기회:**
 - . 직무 보완/노동생산성 향상
 - . 신규 일자리/숙련 창출
 - . 노동안전 제고 (예: 위험/기피업무 대행)와 고령자 작업 지원/보충
 - **부정 위협:**
 - . 자동화 & 일자리 대체에 따른 기술실업 증대
 - . 노동소득 & 숙련 격차 심화
 - . 노동감시/통제 강화와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업무스트레스 유발
 - . 알고리즘 편향성 관련 특정 노동자집단의 차별-배제
 - . 노동자 권익대변기구의 무력화

AI 대전환의 인간노동 소멸 예측/경고

- 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 (2026): “노동시장에 대한 AI 쓰나미 충격” (전세계 일자리의 40% 그리고 선진국 일자리의 60%, AI 노출)
- Geoffrey Hinton 교수 (202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): “(AI세상엔) 인간의 할 일 소멸”
- Vinod Khosla Sun Microsystems 공동창업자 & 빅테크 투자자 (2026): “2030년대 초반까지 80% 일자리의 AI 대체. 오늘 다섯 살 아이들은 구직 필요 없을 것..”
- Citrini Research (2026): AI가 화이트칼라 노동 대체 (ghost GDP), 고실업 유발, 소비기반 붕괴, S&P500 금융시장 대폭락으로 2028년 Global Intelligence Crisis 발발의 가상 시나리오 제시



AI 기술혁신의 노동시장 영향분석은 ...

- AI의 노동시장/일자리 영향이 매우 심대할 것에 대해 전반적 공감대 형성, 하지만 국내외 기관들의 영향분석은 혼재된 전망 제시
 - OECD (2023): 고숙련 직업의 AI 대체와 저숙련 일자리의 자동화로 인한 고용 감소 & 전문인력 수요 증가와 신규 일자리 창출 함께 전망되기도.
 - McKinsey (2025): AI가 미국 노동 시간의 최대 57% 자동화할 가능 수치가 인력대체 뜻하는 것 아니라 과업 단위의 기술적 잠재력 측정한 것임을 의미 (인간+AI 협업 강조)
 - WEF의 2025 미래 직업 보고서: 전세계 기업의 41%, 5년내 인공지능으로 인력감축 계획, 2030년까지 9,200만 개의 일자리 소멸, 1억 7,000만 개 신규 창출 → 7,800만 개 일자리 순증
 - Acemoglu (2026): 2024년 미국 노동자의 52%가 그들 일자리에 대한 AI 영향 우려 표명, AI 사용 노동자의 42% AI 일자리 기회 낙관 예상.
 - 한국은행 (2023): 우리나라 일자리의 약 12% (341만개) AI 대체가능성 높음; AI 노출 업종에서 청년 고용의 큰 감소
 - KLI (2024): 우리나라 일자리의 9.8% 대체 가능, 15.9% 증강 효과
 - 한국은행 (2025): 근로자 51.8%이 생성형 AI 업무 활용 (미국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준); 현재 Physical AI 노출 11% & 향후 27% 확대 예상 (고령화 대응 가능); 전체 근로자의 24% AI 생산성 혜택, 27% AI 대체 또는 소득감소
- ❖ 이번에도 같을까? → 학습 · 범용 · 자율의 특성/능력을 갖춘 Agentic & Physical AI의 활용 증대로 인한 일자리 대체/자동화를 극복할 수 있을까??

시 대전환 대응의 노동사회 과제

AI 대전환의 이중적 대응과제 & 전략

■ AI 대전환의 단계별 대응목표과 정책과제

- ✓ 단·중기: 인간-AI 협업 지향의 노동포용적 전환 추진
 - AI 보강 & 신규 창출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직무 Upskilling & AI Literacy 지원
 - AI 대체에 따른 전직 & 직무재배치를 위한 Reskilling 지원
 -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나누기 및 고령화/구인난부문의 AI 활용촉진 정책추진 & 사회적 합의 마련
 - AI 관련 소득격차·편향적 차별·알고리즘통제/감시·사생활침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
- ✓ 장기: AGI 주도 생산방식의 도래에 따른 인간생활-사회체제의 패러다임 전환
 - AGI 생산 가치의 사회적 재분배 방식(예: 세제 & 기본소득 등)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실행방안 마련
 - 사회구성원들의 노동·교육·소비·여가 생활방식 및 사회안전망에 관한 Human Empowering
 - 정치경제적 권력 집중/승자독식과 AI 지배력에 대한 민주적 규제 거버넌스 구축

■ AI 대전환 대응의 접근 전략

- ✓ AI 대전환 관련 단·중·장기 노동사회 정책의제들의 공론화&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-가동
- ✓ AI 혁신성장과 AI 위험규율의 균형 잡힌 사회적 계약 & 국정기조 확립-추구
 - ❖ 독일 Industry 4.0 & Arbeit 4.0 (2015) 사례 참조요

👉 AI 대전환 갈등비용 최소화와 AI 강국의 추격 동력 강화

감사합니다